

#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

—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2017년 3월과 6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과 학습지도요령 해설(學習指導要領解説)을 각각 개정, 고시하였다. 초·중학교의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 등이 기술되었다.<sup>1</sup>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량으로 기술되었던지라, 그에 따라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내용과 양적 면에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개정된 후 첫 번째 검정결과가 2019년 3월 26일 발표되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였다.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모두 12종인데, 3개 출판사 즉 동경서적(東京書籍),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教出版), 교육출판(教育出版)에서 3학년부터 6학년

\* 논문 투고일: 2021. 4. 18. 심사 완료일: 2021. 5. 18. 게재 확정일: 2021. 5. 30.

1 2017년 개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근·서종진, 2018,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6호, 30~52쪽 참고.

까지 학년당 1종씩 제작하였다.<sup>2</sup>

이어 2020년 3월 24일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19종(지리(地理) 4종, 공민(公民) 6종, 역사(歷史) 9종)이 검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중 17종의 교과서(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7종)가 합격 판정을 받고, 2종의 역사 교과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한 2종의 역사 교과서는 우의 성향 출판사인 자유사(自由社)와 영화서적(令和書籍)의 교과서였다. 자유사의 역사 교과서는 오류가 많아 그 기준을 초과하였고, 영화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sup>3</sup>

2019년과 2020년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각각 2020년과 2021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대한 검토는 일본의 초·중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에 기초한 독도 교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독도 교육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개정된 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특징, 그리고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2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출판 현황을 보면, 4개 출판사에서 3학년~6학년까지 학년별 3종의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이전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2014년에 있었는데, 4개 출판사 12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그때 검정 신청을 했던 광촌도서(光村圖書)가 2018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동경서적은 5학년과 6학년 사회 교과서를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출판하였다.

3 2020년에 불합격한 자유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다시 검정 신청을 하여 2021년 3월 30일 검정 통과하였다.

4 2020년 검정통과 중학교 교과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로는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 있다. 임태봉, 2020,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연구: 2020년도 검정통과본 내용 분석과 기술 배경 검토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9호, 301~328쪽 참고.

## II.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특징

### 1. 독도 기술 현황

2019년 3월에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의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 4학년 교과서 3종(동경출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중 3종, 5학년 교과서 3종 중 3종, 6학년 교과서 3종 중 3종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거나 지도에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3학년 사회 교과서(3종)에는 독도 관련 표기나 기술이 없다.

2019년 검정 통과 교과서를 이전에 검정 통과한 2014년 검정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학년 3종의 모든 사회 교과서가 2014년의 3·4학년용 교과서와 동일하게 지도상에 독도를 ‘竹島’ 또는 ‘竹島(島根県)’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표시하여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둘째, 5학년과 6학년의 모든 사회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2014년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외에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고,<sup>5</sup>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거’를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sup>6</sup>

2019년 검정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이전 교과서에 비해 독도에 관한 기술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지도와 사진 등의 시각 자료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5 2014년 검정 통과 교과서 중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광천도서출판 6학년 사회, 143쪽; 일본문교출판 6학년(상) 사회, 162, 163쪽; 일본문교출판 6학년(하) 사회, 69쪽; 교육출판 6학년(하) 사회, 43쪽.

6 일본문교출판 6학년(하) 사회(2014년 검정 통과), 69쪽.

##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

〈표 1〉 2014년과 2019년 검정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 기술 비교

검정연도	학년	교과서 종수	독도기술 (지도포함)	독도 기술 내용			
				기술+지도+사진	기술+지도	기술	지도
2014	3·4	4	3	-	-	-	3
	5	4	4	2	1	-	1
	6	4	4	1	1	1	1
	계	12	11	3	2	1	5
2019	3	3	0	-	-	-	-
	4	3	3	-	-	-	3
	5	3	3	3	-	-	-
	6	3	3	2	1	-	-
	계	12	9	5	1	0	3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sup>7</sup> 그런데 이러한 독도에 관한 내용은 2017년 개정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따라 전반적으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출판사별 독도 기술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교과서 출판사별 독도 기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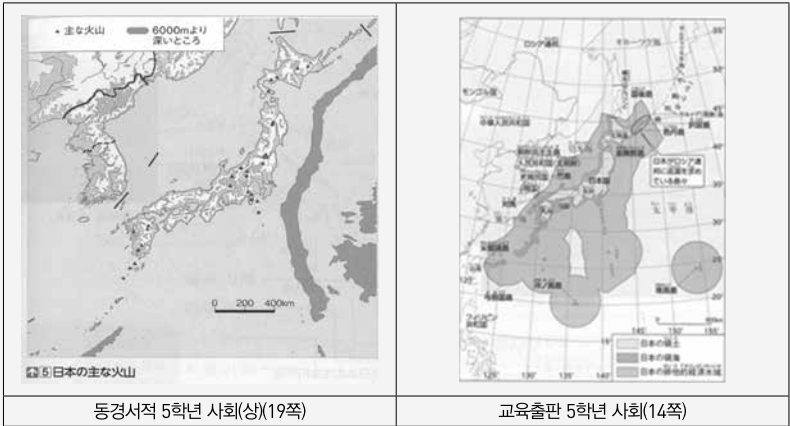
구분	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일본 고유의 영토	○	○	○	○	○	○
한국의 불법점거	○	○*	○	○	○*	○
일본의 계속 항의	○	○	○	○	○	○
시마네현 편입				○		
평화적 해결					○	○

\*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초등학교 4학년 3종(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의 교과서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 서술이 없고, 지도상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5학년 3종, 6학년 3종의 교과서에도 ‘竹島’, 또는 ‘竹島(島根縣)’라고 표

7 교육출판 6학년 사회, 226쪽; 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225쪽; “시마네현 해상(中)에 있는 竹島는 1905(메이지38)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기한 지도가 게재되어 있고, 미표기의 경우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시켜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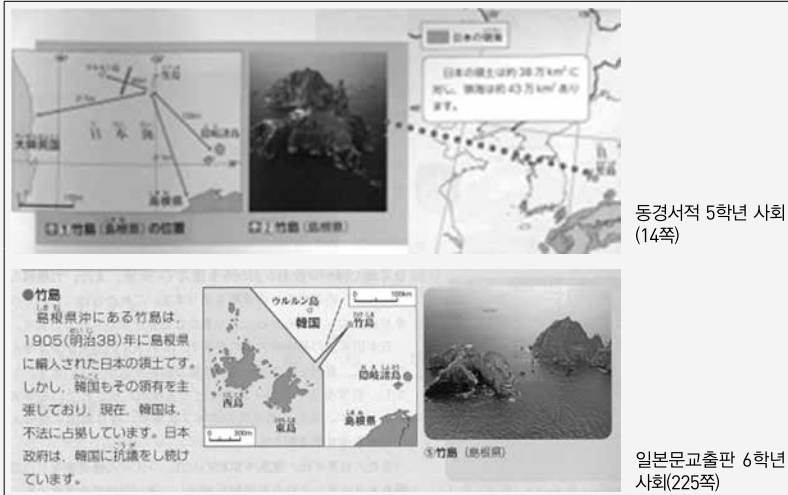


〈그림 1〉 지도상 독도 표기

특히, 일본과 주변 국가를 나타내는 지도에서는 작은 축적의 지도에도 독도의 위치를 표시하여 독도가 ‘일본 소속’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 예는 5학년 사회 교과서 2종(일본문교출판 5권, 교육출판 3권)과, 6학년 사회 교과서 2종(동경서적 1권, 교육출판 1권)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도상 독도 표기 행태는 사회 교과서뿐만 아니라, 도덕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다(일본문교출판 6학년 도덕, 67쪽).

지도상에서는 독도 부분을 확대하여 독도의 지형을 자세히 표시하거나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東島, 西島’ 외에 일본식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 ‘女島(東島), 男島(西島)’로 표기한 교과서도 있다. 또한 5~6학년 6종 중 5종의 교과서에서는 독도의 전경 사진을 게재하여 독도의 모습과 지형에 대해 시각적 이해를 돕고 있다(그림 2) 참조.<sup>8</sup>

8 동경서적 5학년 사회(상), 14쪽; 일본문교출판 5학년 사회, 16쪽 참조.



〈그림 2〉 독도 사진 및 지도 게재

## 2. 독도 기술의 내용상 특징

### 1) ‘일본 고유의 영토’ 서술

5학년과 6학년의 모든 사회 교과서(5학년 3종, 6학년 3종)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점령)’,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즉 ‘일본 고유의 영토인 죽도(竹島)를 한국은 1954년부터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고 기술하고 있다(동경서적 6학년(하), 153쪽).

검정과정에서 보면,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엄격히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2개 교과서(일본문교출판 6학년, 교육출판 6학년)의 신청본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한 표현에 대해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수정을 요구하였다.<sup>9</sup> 이에 따라 해당 교과서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수정하

9 2019년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 검정의견서.

였다.<sup>10</sup> 2014년에 검정 통과한 일본문교출판 6학년과 교육출판 6학년(하) 교과서에서 ‘일본의 영토’로 서술된 것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2019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고유영토’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한 의미로 서술토록 하였는데, 이것은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따른 것이다. 해설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의 영토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11</sup> 교육출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나온 고유영토의 의미를 그대로 적고 있다(15쪽).

## 2) ‘한국의 불법점거’ 서술

5~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6종)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단순히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있고, 2종의 교과서에서는 ‘1954년’이라는 시점을 제시하며 그때부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2</sup> 왜 ‘1954년’이라는 시점을 언급했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경비대가 독도에 상주하며 경비하기 시작한 때를 의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동경서적 5학년(상) 교과서의 신청본에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는데,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수정의견에 따라, “이에 대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하였다.<sup>14</sup> 이것 역시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해설에는 “일

10 교육출판 6학년 사회, 226쪽: “竹島(島根県):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한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장(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국에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근·서종진, 2018, 앞의 글, 33~35쪽 참고.

12 교육출판 5학년 사회, 16쪽; 동경서적 6학년(하) 사회, 153쪽.

13 2020년 검정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언 이후 또는 1954년 한국 경비대의 독도 상주 때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문교출판 지리 교과서, 18~19쪽; 제국서원 지리 교과서, 20~21쪽; 동경서적 공민 교과서, 184쪽; 제국서원 공민 교과서 176쪽; 교육출판 역사 교과서, 268쪽 참고.

14 동경서적 5학년(상) 사회, 14쪽: “일본해상에 있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

본이 독도에 대해서 한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5</sup>

일본의 항의 등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교육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즉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장(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한국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6</sup>

### Ⅲ.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특징

#### 1. 독도 기술 현황

2020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17종이었는데, 그 모든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 이전의 검정결과인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에도 모든 사회과 교과서(18종 중 18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이때 독도 관련 내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그것은 2014년 1월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2017년에 다시 개정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은 2020년 검정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2020년 교과서를 2015년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독도 관련 내용 기술이 감소한 교과서는 없고 분량상 같거나 증가하였다.

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근·서종진, 2018, 앞의 글, 35쪽 참고.

16 교육출판 6학년 사회, 226쪽.

〈표 3〉 2015년과 2020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비교

과목	기술 형태	2015년 검정통과		2020년 검정통과	
		종수	독도 기술	종수	독도 기술
지리	기술+지도	4	4	4	4
역사	기술+지도	8	7	7	6
	기술		1*		1*
공민	기술+지도	6	6	6	6
계		18	18	17	17

\* 마나비샤(学び舎) 교과서의 기술

특히 공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2015년 검정 교과서에 비해 분량 면에서 증가한 경향이 있다. 이는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공민적 분야)에서 언급한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보면, 2014년 해설에 없었던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언으로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 사상자 발생”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또 자세히 서술되었다.<sup>17</sup>

그리고 2015년 교과서에 이어 2020년 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 지리, 역사, 공민 등 과목별 특성에 맞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일본의 영토 편입’, ‘평화적 해결’ 등이 새롭게 기술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각 분야별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마나비샤(学び舎) 역사 교과서와 같이 2015년과 동일하게 측주(側註)에 짤막하게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된 경우도 있다. 즉, “竹島の 영유: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竹島를 일본의 영토(시마네현)로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기술하였다(마나비샤 역사, 189쪽).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지도요령(역사적 분야)에는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8</sup>

17 홍성근·서중진, 2018, 앞의 글, 37~40쪽 참조.

18 홍성근·서중진, 2018, 위의 글, 38~39쪽 참조.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도 초등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의 전경 사진을 게시하거나, 지도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다. 작은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을 그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2. 독도 기술의 내용상 특징

일본 중학교의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 공민적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독도 관련 내용 기술이 과목별로 특징을 갖고 있다.

### 1) 지리 교과서

2020년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 교과서는 모두 4종, 즉 동경서적(東京書籍), 제국서원(帝國書院), 교육출판(教育出版),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教出版)인데, 그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지리적 분야)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sup>19</sup> 아울러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기초하여 다룰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sup>20</sup> 그에 따라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한다.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기술 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19 개정 학습지도요령(2017.3.31):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20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6.21): “이들 영토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4〉 지리 교과서의 독도 내용 기술 현황

출판사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	
	'고유영토' 표현	에도시대 역사	시마네현 편입	강화 조약	'불법점거' 표현	평화선 선언	한국, 경찰 주둔	일본, 계속 항의	ICJ, 제안
동경서적	○	×	×	×	○	×	×	○	×
제국서원	○	×	○	○	○	○	○	×	○
교육출판	○	○	○	×	○	△	×	○	○
일본문교출판	○	○	○	○	○	△	○	○	○

※ △는 유사한 내용임.21

독도 기술 현황을 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고유영토와 불법점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보면, "일본해에 있는 죽도(竹島)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창하고, …… 죽도에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고 기술하고 있다(제국서원 지리, 18쪽).

<p>제국서원 지리(21쪽)</p>	<p>동경서적 역사(26쪽)</p>

〈그림 3〉 지리 교과서의 독도 기술 사례

일부 지리 교과서에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함께, 2005년 시마네현

21 '유사한 내용'이라는 것은 평화선 선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1952년 곧 평화선이 선포된 해를 거론하며 그때로부터 한국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교육출판 지리, 25쪽; 일본문교출판 지리, 18쪽 참고.

의회에서 제정한 '죽도의 날'에 관해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즉 “1905년, 오키도민의 출원을 받은 메이지 정부가 죽도(竹島)의 시마네현 편입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을 고시한 2월 22일이 2005년 시마네현 의회에서 ‘죽도의 날’로 정해졌습니다”고 기술하고 있다(제국서원 지리, 21쪽). 그리고 지리적 요소와 결부하여, 독도가 난류인 대마해류와 한류인 리만해류가 만나는 수역이어서 게나 오징어 등 회유어와 어패류가 풍부한 어장이라고 소개한 교과서도 있다.<sup>22</sup>

## 2) 역사 교과서

2020년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는 모두 7종, 즉 동경서적, 제국서원,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육봉사(育鵬社), 마나비샤(学び舎), 산천출판(山川出版)으로 그 모든 교과서에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1895년에는 침각제도(尖閣諸島)를 오키나와현에, 나아가 1905년에는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할 것을 각의 결정하여 일본령으로 했습니다”고 기술하고 있다(일본문교출판, 193쪽). 이는 독도의 영토 편입 경위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청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역사적 분야)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sup>23</sup>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역사 교과서의 독도 내용 기술 현황

출판사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	
	'고유영토' 표현	에도시대 역사	시마네현 편입	강화조약	'불법점거' 표현	평화선 선언	한국, 경찰 주둔	일본, 계속 항의	ICJ, 제안
동경서적	○	○	○	×	○	○	×	○	×
제국서원	○	○	○	○	×	○	○	×	×

22 제국서원 지리, 21쪽; 동경서적 지리, 26쪽.

23 개정 학습지도요령(2017.3.31.): “영토의 확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때, 북방영토(北方領土)를 언급하면서 함께 죽도(竹島), 침각제도(尖閣諸島)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6.21.): “죽도, 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영토 편입한 경위에도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출판	○	○	○	○	○	○	○	○	○
일본문교출판	○	×	○	○	○	△	○	×	△
육봉사	○	○	○	○	○	○	○	△	×
마나비사	×	×	○	×	×	×	×	×	×
산천출판	×	○	○	×	×	○	×	○	×

※ △는 유사한 내용임.<sup>24</sup>

역사 교과서는 지리와 공민 교과서와 달리,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마나비사, 산천출판). 그 이유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역사적 분야)에는 ‘독도의 영토 편입한 경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반면, 고유영토나 불법점거에 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기술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내용이나 에도시대의 독도 관련 역사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목인 지리나 공민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7종 중 5종: 동경서적, 제국서원, 교육출판, 육봉사, 산천출판). 17세기의 역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역사 교과서도 있다(일본문교출판, 마나비사).<sup>25</sup>

역사 교과서에서는 1905년 독도 영토편입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다루되, 1905년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보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 부분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다. 예를 들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영유권 확인’, ‘일본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이다.<sup>26</sup>

역사 교과서에서는 1905년 영토 편입 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24 ‘유사한 내용’을 보면, 평화선 선언의 경우 일본문교출판 역사 교과서(292쪽)에서는 1952년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한국은 죽도에 한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선언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문교출판 교과서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에 관해 “이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이라고 서술하고 있다(일본문교출판 역사, 292쪽). 일본의 항의와 관련된 육봉사의 서술을 보면, “우리나라는 죽도를 반환해달라고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로 되어 있다.(육봉사 역사, 267쪽)

25 이에 반해 일본문교출판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竹島 주변은 풍부한 어장으로 17세기 초에는 일본인이 어업 등으로 이용했습니다”라며 17세기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일본문교출판 지리, 18쪽.

26 교육출판 역사, 268~269쪽; 제국서원 역사, 266~267쪽; 일본문교출판 역사, 292쪽; 산천출판 역사, 266~267쪽; 동경서적 역사, 178, 180쪽, 259쪽; 육봉사 역사, 183쪽, 267쪽 참고.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본인들의 강치 어업 사진이나 관련 자료 이미지를 게시하고 있기도 하다(그림 4) 참조).

<p>제국서원 역사(267쪽)</p>	<p>동경서적 역사(184쪽)</p>

〈그림 4〉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사례

### 3) 공민 교과서

중학교 공민 교과서의 경우, 7종 중 7종(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제국서원, 자유사, 육봉사)의 교과서가 모두 검정을 통과하였는데, 그 모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1905년 영토 편입’에 대한 내용 기술과 더불어,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언, 일본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 등에 대한 내용도 모든 공민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sup>27</sup> 이는 지리나 역사 교과서에 비해 공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갖는 특징이다.<sup>28</sup> 이처럼 공민 교과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고루 서술하고 있다. 공민 교과서의 독도 내용 기술 현황은 〈표 6〉과 같다.

27 동경서적 공민, 184쪽 참조.

28 개정 학습지도요령(2017.3.31):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竹島)와 북방영토(北方領土)와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 등을 거론할 것.”

〈표 6〉 공민 교과서의 독도 내용 기술 현황

출판사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	
	'고유영토' 표현	에도시대 역사	시마네현 편입	강화 조약	'불법점거' 표현	평화선 선언	한국, 경찰 주둔	일본, 계속 항의	ICJ, 제안
동경서적	○	×	○	×	○	○	○	○	○
일본문교출판	○	×	○	○	○	○	×	○	○
교육출판	○	○	○	×	○	○	○	×	○
제국서원	○	×	○	○	○	○	○	○	○
자유사	○	○	○	○	○	○	○	×	○
육봉사	○	○	○	○	○	○	○	×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공민 교과서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와 아울러, 평화선 선언과 한국의 경비대 주둔에 관해서도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일부 공민 교과서의 경우,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를 강조하기 위해 어선 나포, 선원 억류 등을 실력에 의한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행위로 서술하거나, 사진, 지도, 통계 등을 활용하여 일본 순시선 총격사건, 사상자 발생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자유사 공민, 159쪽). 이러한 내용 기술은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공민적 분야)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sup>29</sup> 이러한 내용은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연결하며 6개의 모든 공민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 물론 교과서마다 분량상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서술 내용을 보면, 마치 독도에서 한국 측의 총격으로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 지금까지 한국 측의 총격으로 일본 어린이 독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29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6.21): “영토문제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경위, 그리고 도항(渡航) 및 어업, 해양자원개발 등이 제한되고 있다거나,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진다든가,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온다는 것 등 불법점거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주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섬들, 이 섬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15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에는 고유영토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일본문교출판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는 죽도가 한 번도 타국의 영토로 된 적이 없던 일본 고유의 영토”(292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17세기 에도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고, 1905년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고유영토 개념을 1905년 독도 영토편입과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905년에 일본 정부는 어부가 랑코도라고 부르는 섬에 대해 타국이 지배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죽도(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하는 각의 결정을 행하여 죽도를 일본의 영토로 했습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31</sup> 그리고 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고유영토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한 교과서들은 기존의 무주지 선점 논리를 새롭게 개념 정의한 고유영토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05년 시점에서 독도가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어서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주지도 ‘이전에 타국에 의해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영토’라는 고유영토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고유영토 개념을 통해 기존에 ‘1905년 독도 영토편입에 근거한 무주지 선점설’과 ‘17세기 중반 영유권 확립에 근거한 고유영토설’의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해소하려는 것 같다.<sup>32</sup>

31 일본문교출판 역사, 292쪽.

32 홍성근·서종진, 2018, 앞의 글, 33~34쪽;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호, 25~28쪽 참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고유영토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초등학교 신청본 교과서에 ‘일본의 영토’로 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을 제시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로 수정토록 하였다.<sup>33</sup>

## 2.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조치

1905년 영토편입 조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논거이지만, 1952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논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다.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설에 근거하여 새로운 영토를 취득했다는 입장에서 서술을 하다가 그 후에는 고유영토설에 근거하여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는데 1905년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오고 있다.

1905년 영토편입 조치에 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드물게 기술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1905년 영토편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두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1905년 영토편입을 새로운 영토취득 행위로 보는 입장(영토취득설)이 있고, 아니면 17세기에 확립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행위로 보는 입장(영유의사 재확인설)이 있다. 즉 영토취득설에 따르면 1905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고, 영유의사 재확인설에 따르면, 17세기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일본문교출판 역사 교과서의 경우, ‘1905년 각의 결정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193쪽), 이것은 1905년에 새로운 영토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해당된다(영토취득설). 그런데 같은 출판사 지리 교과서에는 ‘17세기 초에 일본인이 어업 등으로 이용했다’(18쪽)

33 교육출판 6학년 사회, 226쪽; 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225쪽.

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입장에서는 1905년 영토편입은 영유사를 재확인하는 행위로 보게 된다.

제국서원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인들이 17세기 또는 1900년대부터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고 하면서도,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의사를 공식으로 표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291쪽). 이는 1905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경서적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17세기 중반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면서 1905년 독도 편입조치로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181쪽). 이것은 일본이 17세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고 1905년에 그 영유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요컨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조치를 새로운 영토를 취득한 조치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이 영유사 재확인 조치로 서술하는 교과서도 있다.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조치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면을 보이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든지, 1905년 비로소 새로운 영토를 취득했다든지 그 시점에서 "독도는 한 번도 타국에 의해 점령된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다.

### 3.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일본의 초·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에 관한 현대사 서술에서 1950년대 이래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1952년 평화선 선언과 1954년 경비대 주둔 등 설명을 덧붙이며 한국의 불법점거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변화 양상 또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한국이 언제부터 독도를 불법점거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검정통과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한국이 1952년에 경계선을 긋고 불법점거했다거나,<sup>34</sup> 1952년에 경계선을 긋고 1954년 경비대를 주둔시켜 불법점거했다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sup>35</sup> 그런데 2020년 검정통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일방적으로 긋고, 1954년 경비대를 상주시켜 ‘불법점거’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일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6</sup>

2020년 검정통과 중학교의 공민과 지리 교과서에서도 1952년 해양경계선을 긋고 ‘그 후(또는 1954년)’ 경비대를 주둔시켜 불법점거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37</sup> 그런데 일부 교과서의 경우, 1952년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긋고 불법점거했다는 내용도 있다.<sup>38</sup> 이처럼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서술한 것은 내용을 축약한 결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점거 시점을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본 결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는 ‘한국의 불법점거’ 시점에 관한 서술이 없어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리 쓰여지고 있으나, 점차 ‘1954년’으로 통일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들을 볼 때, 앞에서 말한 ‘고유영토 관련 개념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측에서는 불확정적인 독도 영유권 논리에 대한 합리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중학교 교과서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를 일본의 외교적 항의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 등 일본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대비하

34 제국서원 역사(2015년 검정통과), 247쪽 참고.

35 일본문교출판 역사(2015년 검정통과), 265쪽, 동경서적 역사(2015년 검정통과), 252쪽 참고.

36 교육출판 역사, 268쪽, 제국서원 역사, 267쪽, 일본문교출판 역사, 292쪽 참고.

37 제국서원 지리, 21쪽; 일본문교출판 지리, 18쪽; 제국서원 공민, 176쪽; 동경서적 공민, 184쪽; 교육출판 공민, 197쪽; 자유사 공민, 159쪽 참고.

38 육봉사 공민, 189쪽; 일본문교출판 공민, 182쪽 참고.

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서술은 한국은 ‘불법을 자행하는 국가’인 반면, 일본은 국제법을 기초로 행동하는 평화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일본 영토문제담당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의 권고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7월 2일 동 전문가 간담회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죽도문제에 관해서는 1950년대 한국이 힘으로 죽도를 탈취하고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포함한 평화적 방법에 의해 국제법에 준하여 해결을 추구해온 점을 대비하여 발신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9</sup> 이는 독도에 관한 여론을 조성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한국의 의미지와 평화와 국제법을 존중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부각시키라는 것이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정치적 홍보방침이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54년(또는 1952년) 이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광복 후에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 및 1033호 등 연합국의 조치와 한국 정부에 의해 실효적으로 관리,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 4. 한국의 주장 소개

중학교의 자유사와 육봉사의 공민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주장을 소개하며 비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표 7>과 같다.

39 「戰略的發信の強化に向けて：領土・主權をめぐる内外發信に関する有識者懇談會結果報告書」(2013. 7. 2)

##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

〈표 7〉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한국 견해 비판 서술

	한국의 견해	일본의 비판
자유사 공민 (159쪽)	한국이 竹島의 영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①竹島는 한국명 독도로, 고유의 영토이다.	①의 주장에 대해, 1905년 우리나라에의 영토편입 전에 한국의 竹島 영유의 명확한 근거가 없고,
	②일본은 힘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했다. ③GHQ의 지령으로 한국 영토로 간주되고 있었다.	다른 2개의 주장은 사실과 국제법에 비추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는 반론을 하고 있다.
육룡사 공민 (189쪽)	조선의 고문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이 기재되어 있고, 이 우산도는 바로 현재의 竹島이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어, 竹島는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또 일본에 의한 竹島의 영토편입은 한국 병합에 이르는 침략의 제일보(第一步)이고, 정당성이 없다.	한국은 '우산도'가 竹島라고 주장하지만, 울릉도의 면 동쪽에 위치한 竹島는 아니다. 또 역사적 사실로서 竹島는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다. 침략의 제일보 등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일본 측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고지도와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가 독도인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표기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독도라고 하는가? ②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③ 한국병합 전에 일본이 독도를 힘으로 침탈한 증거가 있는가? ④ SCAPIN 677 등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⑤ 한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 “사실과 국제법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는 등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한국 측에서 유력하게 제시하는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2017년에 개정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초등학교 4~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3개 출판사, 9종)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지도에 독도를 竹島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5~6학년 교과서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이에 대해 일본이 계속 항의’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와 달리, 1905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독도에 관한 내용 기술은 간단하지만,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짧은 문장이 정치적 구호처럼 매우 무겁고 강한 느낌을 준다.

2020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든 공민(6종)과 지리(4종)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역사 교과서(7종)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여, 과목별로 비중을 조금씩 달리하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고 있다.

지리 교과서(4종)와 공민 교과서(6종)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기술하면서도, 공민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불법성과 대비하여 국제법에 기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

다. 그리고 모든 역사 교과서(7종)에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1905년 이전의 역사보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한국의 평화선 선언 등 현대사에 비중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05년 이전의 역사적 서술보다는 1905년 이후 국제법적 입장에서 간단하고 명료한 서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논거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영유권 확립이나 1905년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하면 할수록 일본 주장의 전체적 모순과 부당성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를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른 서술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성격을 둘러싼 주장의 모순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법성과 일본의 정당성을 대비시켜서 한국이 불법을 행하는 국가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술은 2017년 3월과 6월에 각각 일본 정부가 개정, 고시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따른 것이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홍보 대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반면,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배제한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과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치 등의 역사적 사실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탈 과정에서 벌어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독도 침탈의 역사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국가 주도의 주입식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이웃국가인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한일 양국 미래 세대 간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교육에 대응하여 우리의 독도 교육 현황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교육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 국문초록

2017년 3월과 6월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각각 개정, 고시하였다. 초·중학교의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 등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개정된 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특징, 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초등학교 4~6학년의 모든 사회 교과서(3개 출판사, 9종)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5~6학년 교과서의 경우,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을 기술하고 있다. 중학교의 모든 공민(6종)과 지리(4종)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역사 교과서(7종)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2017년 3월과 6월에 각각 일본 정부가 개정, 고시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고유영토’의 개념을 ‘타국에 의해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영토’라고 정의하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1905년 무주지 선점설과 17세기 영유권 확립에 근거한 고유영토설의 상호 모순된 주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해설)과 검정과정을 통해 교과서 기술에서 자국 주장의 모순을 최소화하는 한편,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자국에 불리한 역사적 서술은 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대비함으로써 한국은 불법을 행하는 국가, 일본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국가 주도의 주입식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이웃국가인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한일 양국 미래 세대 간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독도,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고유영토

ABSTRACT

The Status and Issues with Dokdo-Related Description in the Certified School Textbooks after th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Revision in Japan

– Focused o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books

Hong, Seong Keu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March and June of 2017, the Government of Japan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revised and announced the revised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their Commentari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these revised Guidelines and Commentaries, they are described as the followings: “to mention tha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etc.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and issues with Dokdo-related descriptions in Japanes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which respectively passed the examination in 2019 and 2020 after the 2017 revision of Curriculum Guidelines and Commentaries.

All Japanes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3 publishers, 9 types) for 4<sup>th</sup> to 6<sup>th</sup> grade include the contents about Dokdo. For example, in the textbooks for 4<sup>th</sup> grade students, Dokdo is marked as a Japanese territory in the map. In case of the textbooks for the 5<sup>th</sup> and 6<sup>th</sup> grade, Dokdo is described as “Japan’s inherent territory” and “being illegally occupied by Korea”.

In the textbooks of Citizens (6 types) and Geography (4 types) of Middle school, Dokdo is described as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and “under Korea’s illegal occupation”. In addition, all History textbooks (7 type) state that “Japan incorporated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These descriptions are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Guidelines and Commentaries.

In Japanese textbooks, the concept of “inherent territory” is defined as “a territory which has never been occupied by other countries,” and the textbooks emphasize tha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is definition of the concept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ntion to minimize the contradictory claims of the existing theory of occupation of terra-nullius in 1905 and the theory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17<sup>th</sup> century. This show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d the contradictions of their own arguments in their textbook descriptions through the Guidelines and examination processes, while controlling not to write historical description which can be unfavorable to their country such as the 1877 Directive of the Grand Council of state

(Dajokan). In addition, by claiming that Korea has been illegally occupying Dokdo, and that Japan has been working for a peaceful solution, the textbooks highlight Korea as an illegal occupation committed country whereas Japan is described as a peace-loving country.

The description about Dokdo in Japanese textbooks shows how the Japan's state-led education leads their students to have an unfavorable impression about Korea, their neighboring country, thus, can promote distrust and conflict between the future generations of Korea and Japan, for which a serious concern can be expressed about its harmful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 Keywords

Dokdo, Japan, textbook, School Curriculum Guideline(學習指導要領), inherent territory

### 참고문헌

- 엄태봉, 2020,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연구: 2020년도 검정통과본 내용 분석과 기술 배경 검토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9호
-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호
- 홍성근 · 서종진, 2018,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6호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 文部科学省, 小學校 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學習指導要領 解説.
- 文部科学省, 中學校 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學習指導要領 解説.

### 2019년 검정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 東京書籍(5학년, 6학년).
- 日本文教出版(5학년, 6학년).
- 教育出版(5학년, 6학년).

### 2020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 東京書籍(地理, 歴史, 公民).
- 帝國書院(地理, 歴史, 公民).
- 教育出版(地理, 歴史, 公民).
- 日本文教出版(地理, 歴史, 公民).
- 育鵬社(歴史, 公民).
- 学び舎(歴史).
- 山川出版(歴史).
- 自由社(公民).